

11강 어법 정확성 파악

Gateway 인간의 적응적 정보 축적

We are exceptionally smart, and this helps us adapt to a wide range of environments. But we are not nearly smart enough as individuals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s that confronted modern humans as they spread across the globe. The package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used by any group of foragers is far too complex for any individual to create. We are able to learn all the things we need to know in each of the many different environments in which we live only because we acquire information from others. We are much better at learning from others than other species are, and we are motivated to learn from others even when we do not understand why our models are doing what they are doing. This psychology allows human populations to accumulate pools of adaptive information that greatly exceed the inventive capacities of individuals.

우리는 대단히 똑똑하며, 이는 우리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인으로서 우리는, 현대 인류가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직면했던 적응상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은 결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 어떤 수렵·채집 집단이 사용하는 도구, 채집 기술, 생태 지식, 사회적 설비의 모음은 어느 한 개인이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다른 각각의 환경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종들보다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데 훨씬 더 능숙하며, 우리의 모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타인으로부터 배우려는 동기를 지닌다. 이러한 심리는 인간 집단이 개인의 발명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방대한 적응적 정보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Exercise 1 은유를 활용한 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

Here's an application of metaphors to research papers: Below-grade-level readers in my urban middle school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doing research.

Their answer when assigned to do "a report" is to come to the media center and copy verbatim everything in the encyclopedia article or whatever source they have located, be it Internet, print, or whatever.

To try to get the students to understand why it isn't necessary to copy everything in the articles, I use a comparison to a supermarket.

I ask them if everything in the supermarket is useful, and we discuss this, with the usual conclusion being that it is, but we don't buy everything all the time.

Then I ask them why they don't buy everything each time they go and how they determine what to buy when they go with their parents.

Someone usually mentions that they have a list. From that point on, I lead a discussion about how whatever their teachers have asked for is their "shopping list" for their research, and they should just read for that information and write it down in note format.

It sometimes helps them to understand that copying everything is a wasteful endeavor.

여기 은유를 조사 보고서에 적용한 것이 있다. 내가 다니는 도회지 중학교의 학년 수준 이하의 읽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조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과제를 받을 때 그들의 해결책은 미디어 센터에 와서 백과사전 글 또는 자신들이 찾아낸 어떤 출처에서, 그것이 인터넷이든 인쇄물이든 또는 무엇이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베끼는 것이다.

학생들이 기사의 모든 내용을 베낄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는 슈퍼마켓에 대한 비유를 이용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것이 유용한지 묻고, 우리는 이를 토론하는데, 일반적인 결론은 그것이 유용하지만 항상 모든 것을 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이 매번 갈 때마다 모든 것을 사지 않는 이유와 부모님과 함께 갈 때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물어본다.

누군가는 대개 그들에게 목록이 있다고 말한다.

그 시점부터 나아가 나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요구했던 모든 것이 조사를 위한 '쇼핑 목록'이 되고, 그들은 그 정보만을 읽고 메모 형식으로 적어야 하는가에 관한 토론을 이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베끼는 것은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때때로 도움이 된다.

Exercise 2 시장 효율성이 사회적 · 환경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Reformist approaches assume that markets could operate in more equitable and environmentally reasonable ways, and that a market is the most efficient option available.

Yet the logic of market efficiencies generally rotates on purely monetary calculations, effectively reasoning in a hall of mirrors and marginalising real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Familiar examples are conventional food retailers, such as supermarkets, which purchase fruit and vegetables as cheaply as possible.

Inexpensive produce might be grown using soil- and water-damaging fertilisers, by poorly paid illegal migrant workers, and transported long distances using more cheap labour and environmentally damaging practices.

However, organic farmers can only follow ecologically sound practices and make sure they pay their workers fair wages if the food costs more, meaning supply for an elite demand.

By its very nature, one never manages to escape the conundrums that production for trade entails. Real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involved in caring for people and Earth highlight the inequities and damage of market-oriented activities.

개혁주의적 접근법은 시장이 더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시장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시장 효율성 논리는 일반적으로 '순전히 금전적' 계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거울의 방에서 사고하며(자기 논리에 스스로 갇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진정한 사회적 및 환경적 가치를 주변화한다.

친숙한 사례는 슈퍼마켓 같은 전통적인 식품 소매업체인데, 그곳은 과일과 채소를 가능한 한 값싸게 구매한다.

저렴한 농산물은 저임금 불법 이주 노동자에 의해 토양과 물을 훼손하는 비료를 사용하여 재배되어 값싼 노동력과 환경을 훼손하는 관행을 더 많이 사용하여 장거리 운송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기농 농민들은 식품 가격이 더 높아야만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행을 따르고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이는 엘리트 수요를 위한 공급을 의미한다.

바로 그 본질로 인해, 그 누구도 절대 거래를 위한 생산이 수반하는 난제를 용케 벗어날 수 없다.

사람과 지구를 돌보는 데 수반되는 진정한 사회적 및 환경적 가치는 시장 지향적 활동의 불평등과 피해를 부각한다.

Exercise 3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인종

There is no scientific basis for the term "race". Most humans are genetically very similar and there is so little variation amongst us that it is not possible to draw neat boundaries around people and label them as a distinct racial group. Race is an example of social construction, where social processes create something that essentially does not exist but takes on real force in people's lives.

Sociologists prefer to call these processes "racialization".

Historical evidence that race has always been an issue is hard to find.

For example, in ancient Rome there were various leading figures, such as Emperor Septimius Severus (ruled C.E. 193-211), who were black. Little is said of their skin colour in accounts written at the time, because the ancient Romans did not think it made any difference.

They thought more in terms of judging people as being civilized or a barbarian.

‘인종’이라는 용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대부분의 인간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우리 사이에 변이가 너무 적어서 사람들 주위에 깔끔한 경계를 그어 그들을 뚜렷한 인종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종은 사회적 구성의 한 예로, 여기에서 사회적 과정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인종화’라고 부르기를 선호한다.

인종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에는 Septimius Severus 황제(서기 193~211년 재위)와 같은 다양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흑인이었다.

당시 기록된 설명에는 그들의 피부색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데, 고대 로마인들은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문명화되었는지 미개인인지로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이 생각했다.

Exercise 4 1인분 양이 증가한 결과

Many factors contribute to Americans' growing waistlines, but one observation in particular cannot be overlooked: The incidence of obesity has increased in parallel with increasing portion sizes.

Consider this: Adults today consume an average of 300 more calories per day than they did in the year 1985.

Is this just a coincidence, or do larger portion sizes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In almost every eating situation, we are now confronted by huge portions, which are perceived as "normal" or "a great value."

Americans have created the perception that large portion sizes are appropriate, creating an environment of portion distortion.

We find portion distortions in restaurants, where the jumbo-sized portions are consistently 250 percent larger than the regular portions.

We even find portion distortions in our homes, where the sizes of our bowls and glasses have steadily increased and where the surface area of the average dinner plate has increased 36 percent since 1960.

Research shows that people unintentionally consume more calories when offered larger portions.

Consuming larger portion sizes can contribute to positive energy balance, which, over time, leads to weight gain and ultimately can result in obesity.

많은 요인이 미국인들의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원인이지만, 특히 한 가지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비만 발생률은 늘어나는 1인분 양과 나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오늘날 성인은 그들이 1985년에 그랬던 것보다 하루 평균 300칼로리를 더 섭취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더 커진 1인분 양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거의 모든 식사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거대한 1인분과 마주하게 되며, 그것은 '정상'이거나 '(가격 대비) 훌륭한 가치'로 인식된다.

미국인들은 큰 1인분 양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만들어냈으며, 이로 인해 '1인분의 왜곡'이라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음식점에서 1인분의 왜곡을 발견하는데, 점보 사이즈 1인분은 일반적인 1인분보다 일관되게 250% 더 크다.

우리는 심지어 가정에서도 1인분의 왜곡을 발견하는데, 그릇과 유리잔의 크기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평균적인 주유리용 접시의 표면 면적이 1960년 이후로 36% 증가했다.

연구는 더 큰 1인분이 제공될 때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1인분 양을 섭취하는 것은 에너지 과잉 상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비만을 야기할 수 있다.